

전상수 전 구청장, 부산여성상 수상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서, 여성지위 향상 권익증진 공로



전상수 전 구청장이 지난 3일 허남식 시장으로부터 부산여성상을 받고 있다.

전상수 전 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제15회 부산여성상을 받았다.

전 전 구청장은 50여 년간 언론·정치·공공 분야 등에서 여성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전 전 구청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정부에서는 여성의 날 등을 제정하며 여성들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여성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

40여 년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근무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남구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위 강화 등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공직사회 양성평등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부산 최초의 여성 구청장으로서 UN평화공원 조성과 이기대 해안산책로 조성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이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일하며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을 창설 운영해 여성 인제 1,000여 명을 육성하고 성인지적 정책 실현과 성 평등 사회 환경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이밖에도 국제장애인협회 고문과 부산여성뉴스 편집고문,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봉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시장 표창패 받아

문용순 아이코리아 남구지회장

문용순 아이코리아 남구지회장이 지난 3일 열린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패를 받았다.

문 지회장은 그동안 아이코리아 남구지회 회장과 남구여성단체협의회 감사, 문테소리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사

회봉사를 위해 땀을 흘렸다.

특히 아이코리아 남구지회의 수장으로 지라나는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을 벌이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홀로어르신 분나들이 행사를 열고 감만1동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대접 행사에 정기적으로 후



원하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 지회장은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체험학습, 1:1 멘토 연계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우리 구 이사람

사랑의 집가꾸기 성공 추진

이 창 근 분포복지회장

이창근 분포복지회장은 올해 초부터 50여 회원들과 함께 용호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집가꾸기 사업을 펼쳐 지난달 말까지 모두 4세대의 집수리를 마쳤다.

회원들은 그동안 4개조로 나눠 집수리 사업을 벌였다. 한 가구당 일주일 가깝게 걸리는 공사에도 누구하나 싫다는 소리 하지 않고 해당 가정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해 주고 낡은 싱크대 등을 새롭게 설치해줬다. 회원들 대부분이 용호지역에서 가구점과 인테리어업



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창근 회장은 이러한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한편 회원 스스로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것 같아 기쁘다

며 환한 웃음을 짓는다.

지난 1월부터 분포복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취임과 동시에 회원배가운동을 벌이며 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였다. 그 결과 10여명이 새로 입회해 봉사활동에 열심이다. 이와 함께 집수리사업 등 복지회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대규모 경로잔치를 벌이기로 하고 회원들과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창단된 분포복지회는 그동안 용호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환경 가꾸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지역을 위한 분포복지회 사업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동천 종로전기 대표 1억원 기부

아너소사이어티 입회, 나눔 문화 확산 다짐



박동천 종로전기(주)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부산시청 시장접견실에서 허남식 시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부산에서 2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부산지역에는 28명이

있고 남구에는 최근 입회한 여영진 씨(용호2동)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박 대표는 "기업의 역할 중 하나가 사회환원이라 생각하고 1억원을 기부하게 됐다"며 "이 금액 중 3천만원은 남구에 지정 기탁해 남구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만큼 지역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천 대표는 지난 84년 전기·소방·통신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종로전기(주)를 설립해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선두 업체로 키웠다. 지난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공사사업부를 만들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 이런 모임 어때요 -65세 이상 어르신 노래교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기 딱 좋은데

유일의 태양이 시장 골목까지 내리쬐는 오후, 양산을 들거나 지팡이를 짚고 한껏 맛을 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이어진다. 어디로 향하는지 눈여겨보았다니 용호시장 3층 대강당 웰빙문화센터이다. 이곳에서는 용호2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남구 유일 65세 이상 '어르신만을 위한 노래교실'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있었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반주가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의 표정에 화색이 묻는다. 선 명이 넘는 회원이 목소리를 깔고 멈추고 휘감으며 노래의 물결을 만들어 낸다. 폭우를 쏟아내듯 한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만 되면 '화려한 외출'을 한다는 최고령 손명순(용호2동·90) 할머니는 "시력이 나빠져 책 한 권 읽지 못하는데, 노래 한 곡이 책 한 권 읽는 것과 같다"며 "노랫말 하나 하나가 모두 인생"이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노래교실에서 회장을 맡은 정기숙(용호2동·75) 어르신 역시 "가수도 부럽지 않다. 노래 부르는 금방 금요일이 정말 신나고 즐겁다"며 엄지손가락을 쭉쳐세운다.

윤선자 강사는 30여 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노하루진 신곡을 15분 내로 쉽게 익힐 수 있는 포인트 지도법을 택한다. 윤 강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궁극적인 생각'이다. "이웃에서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는, 그것은 용기며 도전이며 남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에 힘이 실린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엔 귀에 부딪히는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010-3564-7002 김정화 기자



매주 용호시장 대강당서

트로트 배우며 건강 유지

(용호2동·75) 어르신 역시 "가수도 부럽지 않다. 노래 부르는 금방 금요일이 정말 신나고 즐겁다"며 엄지손가락을 쭉쳐세운다.

윤선자 강사는 30여 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노하루진 신곡을 15분 내로 쉽게 익힐 수 있는 포인트 지도법을 택한다. 윤 강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궁극적인 생각'이다. "이웃에서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는, 그것은 용기며 도전이며 남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에 힘이 실린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엔 귀에 부딪히는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010-3564-7002 김정화 기자

이종철 구청장 복지현장 현황 살펴

매일 체험의 날 운영,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관내 한 어린이집을 찾은 이종철 구청장이 원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종철 구청장이 이번에는 복지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종철 구청장은 지난 2월부터 매일 3·4째 주 금요일을 '구청장 복지현장 체험의 날'로 정하고 관내 보육·여성시설과 장애인·노인시설 등을 찾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나사함발달장애 인복지관과 남구노인복지관을 차례대로 방문, 시설전반을 둘러본 후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시설이용자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이종철 구청장은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복지현장 체험의 날을 제정해 운영하

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시설 현황을 살피는 한편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도 성프란치스코의 집과 희망의 전화, 구세군 부산요양원 등을 찾은 체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민선 5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종철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관내 현안사업장을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구정을 행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틈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혜성학교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17곳을 방문해 그간의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사람과 사람들

'운수좋은 날' 공연



심을 끌었던 '운수좋은 날' 앙코르 공연을 했다.

김옥련 발레단장은 지난 9월과 10월 이틀간 해운대문화관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 현대문학과 발레의 만남으로 관심을 끌었던 '운수좋은 날' 앙코르 공연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안진우 경성대 교수(메카트로닉스공학)가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년 고려친화산업육성 지원 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남구수석회 회원 모집

■기간 : 8월1일~31일
■인원 : 남·여 ○○명
■대상 : 수석에 관심 있는 분, 새로운 취미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 기존 수석인도 환영
■회비 : 월 회비 3000원
■혜택 : 문화예술회합동 작품전시회에 작품출품, 출판된 작품은 도록에 수록되어 배부
■문의처 : 남구문화예술회 수석회회장(☎010-9857-3755) 사무국장(☎010-8511-3609)

오륙도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인원 : 55세 미만 ○○명
■응시자격 : 음악에 재능이 있는 남구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이었으면 주 1~2회 연습에 참여 가능한 자
■접수방법 : 남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정기연습 : 매주 화요일(10:30~12:30)·보전소 4층 대강당
■문의 처 : 남구청 문화체육과(☎607-4064)

■ 남 구 를 빛 낸 문 화 · 예 술 인

중학교 시절 '쥐돌이' 만화 출간



① 고우영 화백

재미있는 만화는 어린이들에게 꿈, 호기심과 모험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며 성인에게 휴식을 위한 수면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만화가를 네모 칸에 그림을 매꿔 넣고는 신겨울 발을 적는 사람이 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술을 전공해 만화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의 도움으로 책을 출간했을 때부터 만화가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다. 그들은 화가 못지않게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창작하는 예술가였다.

1953년 감만동 미군부대의 쓰레기장에서 주운 잡지 중에 '미키마

우스'를 보고서 감만 2동에 거주했던 가난한 피난민 중학생이었던 고우영에 의해 16페이지 만화인 '쥐돌이'가 출간되어 그로 하여금 평생 만화가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는 서울미대에 다니면서 호구지책으로 만화를 그렸던 두 형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그림뿐만 아니라 만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개월 사이에 어머니와 두 형이 작고하는 바람에 홀지에 가족의 가장이 된 고우영은 작은 형이 잡지사에 연재했던 '짱구박사'를 추동식이라는 예명으로 대신 그리면서 본격적인 만화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다.

동향국민학교 6학년 때 고우영의 옆자리에 앉은 친구였던 박수웅 씨에 의하면, 그는 평소 말이 없었으나, 6학년 전체에서 2등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였다. 그는 어느 날에 교문 앞에 앉아 도화지에 학교 밖의 경치를 그렸는데, 마치 사진을 보는 것 같이 천재적 화가의 소질을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피난 온 경기중학교에 지원하여 1점 차로 낙방하고 서울동성중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예명으로 '동성'이라 했다.



동향초등학교 졸업 천재 만화가로 명성

고우영의 거리 조성, 새로운 관광명소로

그는 상경한 후, 학창시절에 권투를 하며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만화가가 되었어도 유명 만화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수련을 거쳐 만화가가 되는 코요스를 밟지 않고, 어머니와 형의 죽음 이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

하기 위해 만화를 그렸다. 평소 해박한 지식으로 만화를 그렸으며, 그는 각종 활동을 하며 생활을 즐겼는데 낚시, 사냥, 권투, 골프, 테니스, 탁구, 스키, 암벽등반 등 각종 스포츠 및 여행 등을 즐겼다. 마치 그의 삶이 스포츠 같이 치열

인물을 재해석하여 유비를 쪼다, 관운장과 재갈량을 라이벌로 보는 등 색다른 관점으로 만화를 그렸다.

고우영 그림의 선은 호쾌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줄거리가 잘 흘러가다가도 엉뚱한 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 독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는 등 시대적 정신이 있었다. 마치 그가 아꼈던 만화의 주인공인 일지매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그린 만화는 일화용 우스갯소리나 소비자의 초도근시안 만화를 그렸던 초인과 같았다.

그는 만화가로는 비정규직 코요스를 밟았기에 고정된 캐릭터에 속박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났기 그쳤다. 그리고 역사도 시대상을 뛰어넘어 즐거움을 현재 상황으로 재해석하여 독자들이 만화의 주인공과 보다 가깝게 다가서게 하였다. 서민정서가 득맥 담긴 그의 해학과 풍자, 파격적으로 고전을 재해석하여 독자들이 무릎을 치도록 하였다. 그의 상상력은 절절히 있었고, 꿈에서 본 장면이 그림 듯하면 만화에 옮기는 등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으려 했다. 그는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뻔(fun)한 이야기로 이끌었다. 또한 독자들이 주인공이 된 양 만화를 구성하였는데, 최영희의 일대기를 그린 '대야랑'의 경우 마치 독자들은 자신이 최대야가 되어 강지들과 싸워 승리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였다.

한때 스포츠신문에 고우영이 그린 만화를 보며 퇴근했던 시절이 있었을 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집에 가져온 신문들 자녀들이 서로 먼저 읽으려고 했던 그 신문은 2만

부에서 30만부로 경총 뛰기도 하였다. 그가 쓰레기를 주어 만화 소재가 되게 했던 미군부대가 아직도 감만동에 남아있다. 역사의 언저리에 서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습이 이곳저곳 빠져나갈 쥐구멍이나 몇 개 만들어 두고 출세를 위해 마구 달리고도 하며, 먹고 살리고 눈치를 보는 쥐돌이와 같이 보인다. 2008년도 동향초등학교 총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송상일 총동창회 회장(남구 구의회 의원)의 부탁을 받았으나, "지병으로 미국에 가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에 참석을 못해 미안하다는 것을 전해 달라."라고 친구 박수웅 씨에게 머뭇거리며 전하고는 얼마 후에 타계했다는 신문기사가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했다.

지금 공자 중인 감만동의 문화복지관이 세워지고 있다. 그 근처의 골목길에 긴 담벽이 있다면, 초한지, 삼국지, 가루지기, 일지매 등이 만화에 풀입하게 하였다. 심지어 그는 수술대 위에서도 골프를 상상하여 장비가 바자랑대와 같은 긴 드라이브를 휘두르고 관우는 청룡연월도 대신 3번 우드로 휘둘리는 장면을 그려 독자들이 퍼버린다는 전투장면에 잠시 머리를 쭈게 하였다.

한때 스포츠신문에 고우영이 그린 만화를 보며 퇴근했던 시절이 있었을 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집에 가져온 신문들 자녀들이 서로 먼저 읽으려고 했던 그 신문은 2만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